

‘헌 신’

빌립보서 2장 1-5절

브라질의 교육학자인 파울로 프레이리는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은 생존하지만, 인간은 실존한다.” 생존과 실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물은 현실과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생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현실에 적응하기보다는 현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새로남교인이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과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빛을 내고, 주님의 향기를 내고, 주님의 맛을 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망한다고 해서 모두 진실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나만 같은 은혜가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균형잡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대신맨, 흑기사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은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음식은 자신이 준비할 테니, 포도주 한병씩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축제가 아닌 치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포도주가 아닌 맹물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도주를 가져올 텐데, 나 하나 물 가져간다고 무슨 영향이 있겠어?” 모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며 모두 포도주가 아닌 물병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입니다. 귀찮고, 더럽고, 힘든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흑기사가 되어야 하고, 대신맨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신맨이 위해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흑기사셨습니다. 대신맨 이십니다. 우리가 갇아야 할 죄값을 대신 갚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고통을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헌신을 본 받는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헌신의 기회가 올 때, 우리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드린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 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섬김의 본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이고, 헌신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새로남교우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배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검룡소라는 지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검룡소는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1에 위치한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154킬로미터, 1,500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줄을 이어주는 근원지입니다. 황지연이란 곳도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에 위치한 낙동강의 발원지인데, 하루 5천 톤의 물이 나와



새로남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價値)를 알고 사람과 가치(together)가 있는 교회입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닌 사람 중심의 가치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교육공동체** 나눔 5대 핵심 가치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새로남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새로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남교회 의 예배를 통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통해 삶의 변화(Change)를 만들어 보세요.

김태훈 목사

태백에서 부산까지 525킬로미터 1,300만 of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우리는 왜 이 작은 샘 근원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검룡소와 같은, 황지연과 같은 축복의 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은혜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빛을 되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 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새로남교우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읽어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겸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겸손을 마치 “전 못해요. 몰라요”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봄 심방에 어떤 집에 방문했더니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려낸 별루 없어서요. 반찬이 별로 없네요”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깨어지고 하나님이나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저는 아직도 볼펜을 사용하는 것보다 연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연필을 깎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연필은 몸이 깎여야만 주인에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깎이고, 내 정욕이 깎이고, 내 이기심이 깎이고, 내 질투가 깎이는 것. 그래서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데 사용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로남 교우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말 그대로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사수훈을 통해 헌신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3-16)

빛과 소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담을 쌓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상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타부시 했습니다.

우리도 초창기 기독교 문화에 대중문화는 사탄적이라고 여기면서, 락이라든지, 드림이라든지, 무조건 세상적인 것들을 타부시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우리의 진정한 맛과 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영역에서 균형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적 크리스천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헌신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세상의 빛이 아니라 교회의 빛,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의 소금으로만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짙은 밤새가 진동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헌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사두개 크리스천들처럼 세상에 너무 들어가서 오히려 타협하고, 동화되면서 자신의 진정한 빛과 맛을 잃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새로남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세상에 축복의 근원이 되며,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맛을 내며, 향기내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